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수14:9-12

·가나안의 정복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 하셨다. 그러나 갈렙만은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헤브론 땅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요구함으로 받게 된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특별하게 지정해서 요구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자기공로를 드러내면서 그 댓가로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1) 갈렙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이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갑내기 동기 동창생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 갈렙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할 일 같다. 그러나 갈렙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순종한다.

·공로를 따지자면 갈렙은 헤브론 뿐 아니라 유다 땅 전체를 달라고 해도 줘야 할 판이다. 그런데 갈렙은 자기 스스로 이런 공치사를 안한다. 오히려 남들이 꺼려하는 헤브론 땅만 달라고 한다.

·왜냐하면 갈렙은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로 부터 평가 받고 인정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칭찬 받는 사람은 그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마6:2) 반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 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핍박을 받았다면 기뻐하라고 말씀한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눅 6:22,23) *자기의 상급이 없을 것을 걱정하신 옥한흠 목사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아야 하는 사명이다.(고후5:18)

2) 갈렙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갈렙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으며 어떻게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무엇보다도 사십 오년의 광야 생활 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셨음에도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모세가 하

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 간 사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다.

*중국 교회 예배당에 쓰여진 '임마누엘'

3)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주를 위한 삶에 도전할 수 있다.

·우리는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서 일어난다.

·'늘 자기 생각에 갇혀서 좁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조선시대 허조를 중용한 세종대왕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탓하면서 뒤로 물러난다. 나이 탓을 하고, 건강 탓을 하고,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그런 한계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성장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한계 상황들을 주신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한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한계 상황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 *월로우크리 교회의 오토버그 목사가 쓴 책 이름(설교 제목)

·비록 위험할지라도, 비록 그 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을 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내가 감당해보겠노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결과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며,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기에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도,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다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묵묵히 나의 길을 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수중보를 뛰어 넘지 못해서 매번 떨어지는 물고기

학습 및 적용문제:

1)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구할 때의 상황을 말해보고, 왜 갈렙은 그런 상황에서도 헤브론을 요구했는지 말해보라.(마6:2; 고후5:18)

2) 오늘 내가 망설이고 도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망설이고 있는가?